



“한·미 FTA를 중전기기산업 도약의 기회로”

한·미 FTA 중전기기산업 전략회의 개최

산업자원부는 5.2(수) 교육문화회관에서 중전기기산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중전기기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략회의에서는 『한·미 FTA와 중전기기산업 발전전략』(산자부, 정승일 반도체디스플레이팀장), 『한·미 FTA를 활용한 대미 수출 확대방안』(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오세현 영업기획팀장), 『미국의 중전기기 시험·검사 제도 현황 및 전기연구원의 지원방안』(한국전기연구원, 박병락 전기기기시험부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중전기기분야 협상 결과〉

구 분	즉시철폐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미 국	품목수	732	28	12	10
	수입액	17,652(95.9%)	342(1.9%)	20(0.1%)	391(2.1%)
한 국	품목수	959	69	8	8
	수입액	10,679(96.1%)	308(2.8%)	41(0.4%)	84(0.7%)

※ 미국은 HS 8단위 기준 154개 품목, 한국은 HS 10단위 기준 223개 품목

※ 무관세 품목(미국 41개, 한국 43개) 포함

〈관세양허 현황〉

기 간	한 국	미 국
즉시철폐	변압기, 직류전동기, 정류기기 등	변압기, 전동기, 차단기 등
3년 이내	교류 전동기, 퓨즈, 계전기 등	절연용 물품, 노와 오븐, 리액터
5년 이내	전기도체, 압축전화식 엔진의 발전세트	플라스틱절연전선, 회전변환기부분품 등
10년 이내	-	계전기

FTA 체결로 중전기기분야는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최근 미국은 '50~70년대에 설치된 전력시스템의 교체주기 도래로 중전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진단하고, FTA가 대미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한·미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개척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우선, 미국시장 진출 확대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미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임

생산 대·중소기업, 한전(수요대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공동R&D협의체제를 운영하고,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 군 도출, 핵심기술에 대한 로드맵 등 중전기기산업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또한 친환경기기 및 초고압기기 등 앞으로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오세현 팀장은 『FTA를 활용한 대미 수출 확대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미국 중전기기시장에 대해 철저한 고객 위주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수요자는 단납기, 신속한 A/S, 안정된 품질 등을 요구하며, Brand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 강화, 영업 Network 확충 등 현지 중심의 사업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밝히고, 품질 및 기술력 제고, 고객의 신뢰 확보, Brand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국제협력

한국전기연구원 박병락 전기기기시험부장은 미국의 중전기 시험·검사제도 현황을 설명하고, 전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시험성적서 해외통용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중전기기 대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UL마크 획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 공인시험기관(전기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UL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하반기)

※ UL마크 획득용 시험을 국내에서 실시할 경우 시험비용 부담 완화, 기간단축 등 효과가 예상됨

이와 함께 전기연구원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가 국제전기기기위원회(IECEE) 회원기관 사이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가인증기관(NCB) 자격을 취득할 예정이다.

※ 전기연구원이 국가인증기관 자격을 취득할 경우 전기연구원 발행 시험성적서가 국제전기기기위원회 회원기관 사이에 강제 통용됨

한편, 산자부 김호원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전기기산업은 지난해 생산 21조원, 수출 48억불 달성 등 주력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FTA로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국내 중전기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한·미 FTA를 계기로 대미 수출 증대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등 대미 진출 확대, 기술개발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국 제품안전정책·기준·동향 한눈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제품안전정책과 최신 동향, 국제 공통 안전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국제 제품안전 워크숍'을 국내외 제품안전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국언론재단(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개최했다.

제1부 국제기구 세션에서는,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의장 및 국제소비자제품안전회의(ICPSC) 의장이 참석, 세계시장에서의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표준 적용 확대 등 국제동향을 발표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욱 회장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ISO 소비자정책위원회(ISO-COPOLCO)의 리콜 표준 및 사업자 제품안전가이드 제정을 위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비자시민모임의 문은숙 기획처장이 소개하였다.

아울러, 제2부 주요국 세션에서는 유럽·캐나다·일본·한국 등 4개국 정부관계자가 자국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고 국제협력 활동 등을 발표하였다.

기술표준원 전대천 제품안전정책부장은 "이번 워크숍이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각국의 안전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17일 일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와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과의 제품안전관리 양자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국제 제품안전 워크숍' 개최를 계기로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 지난 3월부터 개편·시행 중인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기대하고 있다.